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5호 【부제 제25308호】 주제 105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유진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대학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을 가장 경건

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에 힘입은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은 국방종합대학에도 뜨겁게 어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방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49돐을 맞으며 대학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것은 주체적 국방과학교육사에 깃들어있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대경사이며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국방공업전사들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희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나라의 국방력발전에서 과학기술인재

가 노는 역할과 중요성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4년 10월 국방종합대학의 전신인 국방대학의 창립을 선포하시였고 여러차례나 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학과구성으로부터 학생들의 제복과 모표, 명장에 이르기까

러온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시여 수령님들의 동상을 가장 숭엄하고 정중히 모시도록 크나큰 영향을 안겨주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